

건설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안전설계시스템(DfS) 체계 구축 사례

김호영

한국남동발전 건설처 토건기술부 차장

작년 12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. 주요내용은 '처벌 및 감독' 등 타율적 규제의 한계 인식과 '자기규율 및 예방역량'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였다. 그리고 이를 위해 선진제도 도입 및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다. 이에 따라, 대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을 지속 시행하는 한국남동발전에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계의 안전성 검토(DfS, Design for Safety)*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형 안전설계시스템 체계 구축을 공공분야 최초로 추진 중에 있다. 경영진의 리더십, 전담 실행조직 구성, 위원회 운영, 지원시스템 개발 등 4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세부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전사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※ 설계 안전성 검토(DfS, Design for Safety) : 계획·설계단계 부터 위험요소를 원천 제거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선진국형 건설안전관리 기법 및 제도